

<http://doi.org/10.5253/kpac.2026.57.6>

## 나운 신우상의 시집 『새곡(塞曲)』과 문집 편찬 과정\*

신현웅\*\*

### 차 례

1. 서론
2. 『새곡』의 문헌적 특징
3. 문집 편찬 과정
4. 결론

### | 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 1712~1775)의 맏아들 나운(懶雲) 신우상(申禹相, 1730~1799)이 창작한 한시를 추가로 발굴해 학계에 소개하고 신우상 문집의 편찬 과정을 추론함으로써 신우상 한시의 한시사적 위상과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에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산문고에 소장된 『새곡』이라는 저편 미상의 문헌에 주목했다. 『새곡』에는 신우상이 1782년부터 1789년까지 창작한 한시 총 172제 254수와 1784년에 지은 <상봉록서>가 수록되어 있다. 1784년 경성판관으로 재직하며 지은 총 122제 155수는 「새상록」이라는 편명 아래, 나머지는 편명 미상으로 「새상록」 뒤에 수록되어 있다.

\* 본 논문은 여러 연구자의 도움과 조언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신요한 선생님께서 『새곡』 열람에, 성균관대학교 안대회 선생님께서 『나운고』 원본 열람에 후의를 베풀어 주셨다. 성균관대학교 장유승 선생님께서 송문회에서 제작한 CD 자료를 공유해 주셨다. 초서 탈초에 한국학중앙연구원 박형우 선생님, 서울대학교 이경근 선생님, 국민대학교 백승호 선생님, 익명의 심사위원께 도움을 받았다. 이상의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새곡』의 출현으로 인해 문집 『나운고』, 『나운집』에 전사되지 못한 작품 총 68제 121수가 추가로 발굴되었다. 그 결과 신우상이 별세하기 10년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한 생애 기간의 한시가 대부분 발굴되었다. 아울러 신우상이 생전에 자편 시선집을 묶어내곤 했다는 실상이 <상봉록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본고의 제2장에서는 『새곡』의 문헌적 특징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문집 편찬 과정을 문헌학적으로 추론했다. 이로써 18세기 조선 문단에서 나운의 시풍을 뚜렷하게 개척한 석북 집안의 한 문인인 신우상과 그의 한시가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18세기 조선 시단과 시풍에 대한 논의가 풍성해지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 18세기, 남인, 신광수, 신광연, 신광하, 부용당신씨, 신기상, 신석상

## 1. 서론

본 연구는 나운(懶雲) 신우상(申禹相, 1730~1799) 한시의 한시사적 위상과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자료 『새곡(塞曲)』에 주목한다. 『새곡』은 신우상의 시집이다. 이 문헌에는 아직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한시가 수록되어 있고 학계에 이미 보고된 문집 『나운고(懶雲稿)』와 『나운집(懶雲集)』의 관계와 문집 편찬 과정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새곡』은 『나운고』와 『나운집』을 보완할 수 있는 문헌이 된다. 이에 『새곡』은 신우상의 창작 세계를 확장하며 문집 편찬 과정을 탐구하는 데에 주목되는 문헌이다.

신우상은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 1712~1775)의 맏아들로서 석북 가문이 당대 문단에서 개척한 성과를 다음과 같이 잇고 있다.<sup>1)</sup> 첫째, 현실 체험과 심미적 경험을 작은 단위의 한시집 여러 편에 묶어 담아냈다. 신우상의 문집 『나운집』은 「북산록」(1), 「괴향록」, 「북산록」(2), 「능성록」, 「월중록」, 「관서록」, 「새상록」 등으로 편차되어 있다. 각 편차는 생애의 특정 국면을 중심으로 한

1) 김동준, 「나운 신우상과 그의 시문에 대하여」, 『돈암어문학』 25, 돈암어문학회, 2012.

다. 이는 신광수가 시인으로서 자의식을 갖고 생애를 「관서록(關西錄)」, 「여강록(驪江錄)」, 「탐라록(耽羅錄)」 등의 소시집으로 정리한 태도를 이은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18세기 시단에서는 이례적이다. 둘째, 감성적(感性的), 연정적(戀情的), 낭만적(浪漫的) 시풍이다. 이 시풍은 신광수와 그의 형제 신광하가 18세기 조선 시단에서 뚜렷하게 개척한 경향이다.<sup>2)</sup> 부친대의 문학적 성취는 “신광수, 신광연, 신광하 및 자제 5인이 문학으로 과환(科宦)에 이르렀으니 성대하지 않는가”<sup>3)</sup>라고 하듯 자식대에까지 이어졌다. 그러므로 신우상이 선대의 성취를 어떻게 잇고 변화해 나갔는지에 대한 분석은 18세기 한시사의 한 국면을 드러내는 작업으로서 가치가 있다.

신우상 한시의 18세기 한시사적 위상과 가치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우상의 저작이 발굴되고 정리될 필요가 있다. 신우상 저작이 문중에 모두 전승되지 못하고 일부가 외부에 산재되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 보고된 저작은 셋이다. 하나는 후손가 고령신씨 송문회에 소장된 『괴경록(槐景錄)』이다. 『괴경록』에는 1768년 음력 7월 7일부터 1798년 10월까지의 벼슬 생활 기록과 재직 시절에 작성한 상소문이 수록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안대회 소장 『나운고』이다. 『나운고』에는 한시와 『괴경록』 일부 기록이 필사되어 있다. 마지막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나운집』이다. 『나운집』에는 『나운고』 수록 한시와 『나운고』 필사 이후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두 문집에는 1765년부터 1783년까지 지은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1783년 이후부터 몰년 1799년까지 지은 작품이 확보되어야 신우상 한시의 전모가 드러나 연구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본고에서 학계에 보고하는 『새곡』은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산문고에 소장된 1책 한적 필사본이다.<sup>4)</sup> 여기에는 『나운집』에 수록된 한시와 함께 1782년

2) 안대회, 「석복가와 조선 후기 문단」, 『문헌과 해석』 61, 태학사, 2012, 210~211면.

3) 김동준, 앞의 논문, 140면. 이 평은 신우상의 동생 신석상(申奭相)이 쓴 <곡백씨문(哭伯氏文)>(『대묘유고(大廟遺稿)』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4)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등록번호 482547, 청구기호 고서학산 集詞曲類 1923. 원본의 디지털 화상은 한국가시문학관 누리집에서 제공된다(G001+KR08-4850000120925.D0.A00000540).

부터 1789년까지 지은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후자는 총 68제 121수로서 새롭게 발견된, 신우상의 말년 작품이다. 이에 신자료 『새곡』의 체제와 내용을 제2장에서 살펴보고 앞서 소개된 두 종의 문집과 『새곡』의 관계를 제3장에서 검토하여 『나운집』의 편찬 과정을 추론한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신우상 한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문헌학적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 2. 『새곡』의 문헌적 특징

본 장에서는 『새곡』의 형태와 내용 서지를 살펴본다. 『새곡』은 불분권 1책 필사본이다. 크기는 21×23.5cm(가로×세로)이다. 제책 방식은 정식의 오침선장이 아니다. 위와 아래에 각각 2침씩 뚫고 한지를 돌돌 말아 만든 지끈으로 제책되어 있다. 아래 좌측과 우측 사진은 각각 앞표지와 뒤표지이다.



[사진 1] 『새곡』 앞표지



[사진 2] 『새곡』 뒤표지

위의 좌측 사진을 보면 앞표지에는 6.6×11.8cm 크기의 ‘塞曲’(새곡)이라는 제

목이 좌측에 목서되어 있다. 우측 사진을 보면 뒤표지에는 4.0×14.4cm 크기의 ‘鏡湖錄(경호록)’이라는 제목이 우측에 목서되어 있다. 앞과 뒤 표지의 목서는 표제로서 크기가 큰 편이다. 앞표지 우측 서등의 아래에는 ‘九’라는 숫자가 있어 『새곡』은 아홉째로 편찬된 책일 가능성이 높다. 『새곡』에는 한시와 서문이 계선, 광곽이 전혀 없는 무지에 필사되어 있다. 본문은 내용과 필사 방식에 따라 「새상록」, 미상, <상봉록서>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문헌 특징을 차례로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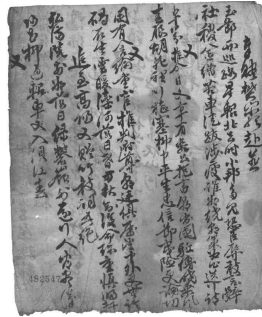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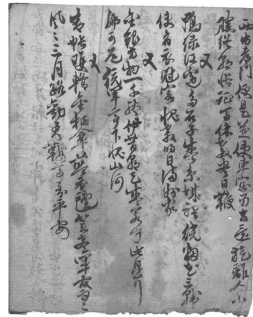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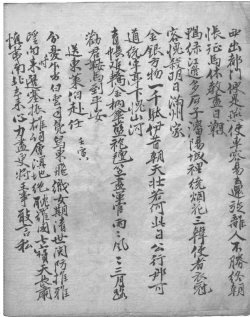
첫 부분은 「塞上錄(새상록)이다. 「새상록」은 첫 장 앞면부터 제23장 앞면까지로서 총 45면이다. 한 면당 총 12행, 한 행당 총 20글자로 필사가 일정하게 되어 있다. 서체에 따라 「새상록」은 다음과 같이 양분된다. 하나는 정갈한 해서로 필사된 제19장 뒷면까지이다. 여기에는 필사 후 일부 글자가 교정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해서가 중심이되 행서가 섞인 제20장 앞면부터이다. 해당 면부터 필사가 진행될수록 행서 비율이 높아지다가 행초서로 바뀌어 나간다. 서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제20장 뒷면 서미에는 ‘以上皆贍(여기까지 모두 배김)’이라는 세필이 있다. 이 어구는 『나운고』에서도 확인되며 문집 편찬 정황을 알 수 있는 흔적으로 짐작된다.

「새상록」에는 총 122제 155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첫 수 <北行初日>(북행초일)부터 제104제 <復次玉川韻却寄>(부차옥청운각기)까지는 『나운집』 「새상록」과 일치한다. 이후 <雪後望西北>(설후망서북)부터 <入靑門>(입청문)까지 총 18제 25수는 『새곡』에만 수록된 신출작이다. <罷官後奉和舍叔韻>(파관후봉화사숙운)이라는 작품이 신출작의 세 번째로 수록되어 있어 신출작 대부분은 신우상이 1784년 경성관관 체차 후에 지은 작품으로 판단된다.

둘째 부분의 편명은 미상이다. 「새상록」이 끝나고 다음 편이 시작하는 제23장 뒷면부터 일부가 뜯겼기 때문이다. 뜯기고 남은 부분은 총 17장이다. 한 면당 총 12행의 분량은 일정하나 한 행당 분량은 총 20글자가 주를 이루되 드물지만 17자, 18자, 19자인 경우도 있다. 글씨는 해서와 행초서가 섞여 필사되며 「새상곡」의 뒷부분의 필사 경향과 유사하게 뒤로 갈수록 행초서 비율이 높아진다.

오자 옆에 ‘ㄱ’를 표시하고 서미에 교체할 글자를 쓰거나, 탈자 자리 옆에 탈자를 쓰거나 탈자 자리에 권점(○)을 표시하고 서미에 탈자를 쓰며 오탈자 교정을 보았다. 「새상록」에서 오자 위에 가필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종이를 살짝 긁어낸 후에 글자를 다시 쓰며 교정을 보는 방식과는 차이가 난다. 이는 「새상록」과 둘째 부분의 필사 성격이 다른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부분에 필사된 작품의 총 분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뜯긴 분량과 해당 부분에 필사된 내용을 알아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뜯기지 않고 남은 첫 면의 첫 네 수가 아래와 같이 표지와 본문 첫 장 사이 간지 뒷면에 필사되어 있어 문헌 비평을 통해 뜯긴 분량을 총 두 면으로 추론할 수 있다.



[사진 3] 『새곡』 제24장 뒷면 [사진 4] 『새곡』 간지 뒷면(좌측)과 앞면(우측)

위의 좌측 [사진 3]은 잘리고 남은 첫 면으로서 제24장 뒷면으로 추정되는 면이다. 이 면은 앞면이 뜯겨 제목이 일실된 네 수가 시작한다. 그런데 네 수는 위의 [사진 4]의 좌측에 행초서로 필사되어 있다. [사진 4]의 좌측은 앞표지 뒤 간지의 뒷면이다. 그러므로 작품의 제목은 앞면에 해당하는 [사진 4]의 우측에서 확인된다. 작품 제목은 <迨至高陽又贈竹枝詞五絕>(추지고양우증죽지사오절)이다. 이 작품 앞에는 <奉贐樊巖赴燕>(봉신번암부연) 네 수가 필사되어 있다. 그런데 간지 앞면에 필사된 분량은 동일 제목에 이어서 지었다는 ‘又’(우)를 제외하면 제목을 포함해 총 10행이 된다. 『새곡』 한 면에는 총 12행이 일정하게 필사되므로 간지 앞면의 총 10행은, 편명이 필사되어 있다고 전제할 때

한 면에 상응하는 분량이다. 필사자가 뜯긴 부분을 앞표지 뒤 간지에 필사했다고 가정한다면 뜯긴 부분은 다음 편명이 시작하는 제23장 뒷면과 그다음인 제24장 앞면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뜯긴 부분에는 총 2제 4수가 필사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 장만 뜯기고 해당 부분이 앞표지 간지에 필사되었다면 「새상록」 다음 편의 분량은 총 18장이 된다. 여기에는 신우상, 여와(餘窩) 목만중(睦萬中)과 국은(菊隱)을 호로 쓰는 문인의 화운시가 수록되어 있다.<sup>5)</sup> 화운시는 총 3제 8수로 목만중의 한 수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작품이다. 신우상의 한시는 체제공 연행 전별시 <봉신번암부연>을 시작으로 하여 <嚴校理土正軌>(엄교리사정만)까지 총 50제 96수이다. 작품 창작 시기와 일부 작품에 세주로 달린 간지(干支)를 보면 작품이 시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수록 시기는 1778년부터 1789년까지에 한한다. <봉신번암부연>은 체제공이 연행을 간 1778년이고 <엄교리사정만>의 앞에 수록된 <莊獻世子遷葬輿>(장헌세자천장만)의 화제가 되는 장헌세자 천장이 1789년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1783년 이후 작품이 발견되었다. 다만 『새곡』에 수록된 시의 하한이 1790년이므로 1791년부터 몰년 1799년까지의 작품은 여전히 미발굴 상황이다.

마지막 셋째 부분은 <상봉록서>(桑逢錄序)이다. <상봉록서>는 제42장 앞면과 뒷면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제목과 필사기를 뺀 본문 분량은 총 300자로서 총 18행에 한 행당 17자 내외로 필사되어 있다. 서체는 행초서이다. <상봉록서>는 1774년에 대동도찰방에 제수되어 1775년에 평양에 부임하여 관서 지역을(①), 1778년 홍양현감에 제수되어 남도 지역을(②), 1782년에 경성관관에 제수되어 관북 지역(③)을 유람하며 지은 시를 모아 ‘상봉록’이라는 제명에 문헌을 편찬하고 나서 1784년 음력 8월에 백문우사(白門寓舍)에서 지은 서문이다.<sup>6)</sup>

5) 타인 한시는 신우상 작품보다 한 단 내려서 필사되며 작품 필사가 끝나는 자리마다 호가 병기되어 있다.

6) “때는 갑신년(1784) 8월로 나운거사가 백문우사에서 제하다”(歲甲辰中秋 櫛雲居士題于白

①은 『나운집』의 「관서록」에, ③은 『새곡』의 「새상록」에 해당될 것이다. 「호남록」(가칭) 정도가 될 ②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상봉록서>는 『괴경록』에 수록된 상소문 이외에 현전하는, 신우상의 유일한 산문이다. 이 서문은 삶을 일정한 의미 단위로 구체화하여 소단위 시집을 마련한 의도와 그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작품이다.

이상으로 『새곡』의 문헌적 특성을 살폈다. 내용상으로 『새곡』은 「새상록」, 1780년대 시편, <상봉록>으로 삼분된다. 서체를 기준으로 해서, 해행서, 행초서 필사 부분으로 삼분된다. 크게는 해서로 단일하게 필사된 부분과 해행·행초서가 섞여 필사된 부분으로 양분된다. 서체 변화로 인해 필사자가 여럿이라고 짐작되지만 창작 시기의 연속성, 일실 부분 추록 등을 고려한다면 서체 변화는 한 사람의 필체가 필사 의식 차이로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한 사람이란 신우상으로 추정된다. 만약 『나운집』을 편찬한 사람이 『새곡』을 보았다면 「새상록」 일부와 1780년대 시편을 누락시키지 않고 필사했을 것이다. 「새상록」이 완전한 편제 형태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1780년대 시편에는 응제시가 다수이므로 선조 선양 입장에서 선호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곡』의 필사자는 제3자가 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새곡』은 친필본으로 추정되며 해서 부분은 앞선 시편을 정사(正寫)하고자 하는 의식의, 이후 부분은 초(草)한 내용을 정사(淨寫)하고자 하는 의식의 소산으로 이해된다. 이는 문집 편찬과 관련되므로 제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 3. 문집 편찬 과정

본 장에서는 『나운고』, 『나운집』, 『새곡』의 특징과 세 문헌의 관계를 중심으로

門寓舍). <상봉록서>, 『새곡』, 42장 뒷면. <상봉록서>의 원문을 옮기고 번역해 [부록 1]로 실었다.

로 문집 편찬 과정을 논의한다. 논의는 세 종 문헌의 시문 수록 양상을 비교하여 문헌 간의 차이를 조망한 후에 세밀하게 비교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나운고』와 『나운집』의 시문 수록 양상에 대해 선행 연구의 오류가 있어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므로 시문 수록 양상 비교를 우선한다.

아래는 세 종 문헌의 시문 수록 양상을 정리한 표이다. 본 장의 논의에서 밝혀지겠지만 『나운고』와 『새곡』은, 『나운집』이 저본으로 삼은 문헌의 저본일 가능성이 높고 『나운고』가 『새곡』보다 앞서므로 『나운고』, 『새곡』, 『나운집』의 순서로 정리해 보인다.

[표 1] 『나운고』, 『새곡』, 『나운집』 시문 수록 양상

문헌명 편명	나운고	새곡	나운집
북산록(北山錄)(1)	66제 93수		66제 93수
괴향록(槐香錄)	17제 39수		17제 39수
북산록(北山錄)(2)	26제 30수		26제 30수
능성록(綾城錄)	32제 62수		32제 62수
월중록(越中錄)	25제 30수		25제 30수
관서록(關西錄)			55제 71수
새상록(塞上錄)		104제 130수 18제 25수	104제 130수
미상		50제 96수	
기타	『괴경록』 1774. 7. 4~7.27. 9제 10수	1784년 8월 작 <상봉록서>	

위 표의 『나운고』와 『나운집』의 작품 수록 양상을 우선 보면 두 문헌의 「북산록」(1)부터 「월중록」까지의 편명과 편 수, 각 편에 수록된 작품 수가 일치한다. 선행 연구의 두 문헌 비교에 따르면 수록된 작품도 동일하다.<sup>7)</sup> 다음으로 『새곡』과 『나

7) 김동준, 앞의 논문, 135~138면.

운집』을 보면 두 문헌의 「관서록」 수록 작품 수가 동일하며 「새상록」은 제1제부터 제104제까지가 동일하다. 수록된 작품도 동일하다. 이러한 작품 수록 양상만으로 다음의 두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첫째, 『나운고』와 『새곡』은 『나운집』의 일부 저본이 된다. 둘째, 『나운고』와 『새곡』 수록 작품 일부가 『나운집』에 필사된 이후에 신우상이 『나운고』와 『새곡』에 작품을 추가로 필사하였다. 이제 두 가지 가설을 차례로 검토한다.

첫째 가설을 검토하기 앞서 『나운고』과 『나운집』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의 주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나운집』과 『나운고』가 “동일한 저본을 대상으로 전사(轉寫)했을 가능성이 짙다”라고 주장했다.<sup>8)</sup> 첫째, 둘 다 시집이다. 둘째, 작품의 수와 편차가 거의 똑같다. 셋째, 동일 작품에 대한 글자의 행간(行間) 위치, 이체자의 모양까지 거의 같다. 두 문헌을 다시 살펴본 결과, 첫째와 셋째는 타당하나 둘째에는 오류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나운고』와 『나운집』에 「북산록」(1)부터 「새상록」까지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고 보고했으나 위의 표와 같이 동일하게 수록된 부분은 「북산록」(1)에서 「월중록」까지이다. 그렇다면 『나운고』와 『나운집』은 동일한 저본을 대상으로 전사된 문헌이기 어렵다.

『나운고』는 『나운집』에 선행한다고 판단된다. 선행 연구에서도 두 문헌의 서체, 세주 등의 차이를 근거로 삼아 ‘확실치는 않’지만 『나운고』가 『나운집』의 “선행본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sup>9)</sup> 두 문헌에 수록된 작품 창작 시기만 보더라도 『나운집』에는 『나운고』에 수록된 시편 이후에 창작된 「관서록」, 「새상록」이 수록되어 있다. 더욱이 『나운고』에는 신광수가 영월부사에서 폄직(貶職)되는 1773년 12월을 하한으로 잡을 수 있는 「월중록」까지 수록된 후에 1774년의 7월 4일부터 당월 27일까지 입조 기사가 이어진다. 입조 기사 뒤에 필사된 9제 10수는 그중에 <전춘(餓春)>이라는 작품이 있으므로 1775년 봄 즈음에 지은 작품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때에는 평양에서 대동도찰방을 맡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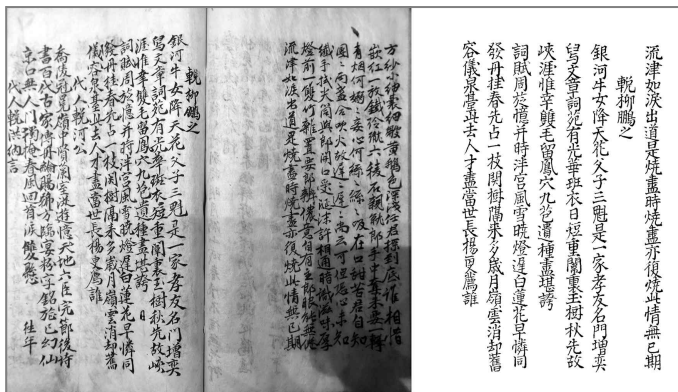
8) 위의 논문, 134면.

9) 위의 논문, 135면.

었으므로 「관서록」의 시기에 해당하므로 창작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나운고』에는 관서 유람 시가 수록되어 있지 않고 1773년 12월이 하한이 되는 「월중록」, 1774년 7월에 한한 입조 기사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9제 10수를 제외한다면 『나운고』는 1775년 전에 편찬된 문헌이 된다. 그러므로 『나운고』는 『나운집』에 선행할 수밖에 없다.

『나운고』는 신우상 자편 친필본일 가능성이 높다. 『나운고』에는 성격이 다르지만 시기적으로 연속한 「월중록」과 1774년 7월 4일부터 당월 27일까지의 입조 기사가 한데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3자가 『나운고』라는 문집을 편찬했다면 『나운집』과 같이 그보다 앞선 시기의 입조 기사도 있어야 했다. 그런데 『나운고』는 마치 1774년 7월 이전에 앞서 지은 시편을 정리하고 당해 7월 입조 기사를 임시로 정리한 듯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더욱이 문집 편찬자라면 입조 기사 뒤의 초서라는 서체로 9제 10수를 추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해당 시편을 입조 기사 앞으로 옮겨 한시를 한 편으로 묶었을 것이다. 입조 기사 필사 후에 시편을 발견했더라도 앞선 시편과 같이 해행서로서 작품을 필사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운고』는 자편 친필본으로 판단된다.

위의 둘은 작품 필사 방식의 차이에서도 재확인된다. 아래 좌측은 『나운고』, 우측은 『나운집』의 「능성록」 일부로서 동일 작품이 수록된 부분이다.



[사진 5] 『나운고』(좌측) 『나운집』(우측) 동일 시편 수록 부분

[사진 5] 좌우의 <輓柳鵬之>(만류봉지)는 「능성록」 <南茶艷曲十解>(남다염곡십해)에 이어지는 작품이다. 『나운고』에 <남다염곡십해>와 면을 달리하여 필사된 <만류봉지>는 『나운집』에 연이어 필사되어 있다. 『나운고』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이 총 네 부분이다.

①[29장 앞면]<만류봉지>-<代人輓河公>(대인만하공)-<代人輓洪納言>(대인만홍납언)-<拈韻興法正同賦>(넬운여법정동부)[29장 뒷면]

②[30장 앞면]<槐省直中>(괴성직중)-<進賀日以陪箋官進>(진하일이배전관진)-<翰林院直中吟示下省同僚>(한림원직중음시하성동료)-<進饌日爲右僚奪入不得參宴戲詠一律>(진찬일위우료탈입부득참연희영일률)-<老宴日次銀臺韻>(노연일차은대운)-<三月十九日彰義宮陪 賀夜口占>(삼월십구일창의궁배하야구점)[30장 뒷면]

③[31장 앞면]<苑中漫詠>(원중만영)-<酒餘臥呼>(주여와호)-<獻寄南巷>(희기념항)-<再疊>(재첩)-<步月漫詠書寄南巷>(보월만영서기념항)-<觀臨禱雨夜敬占一律>(관림도우야경점일률)-<送朴承宣出宰寧邊>(송박승선출재영변)[32장 뒷면]

④[33장 앞면]「월중록」 이하 생략

위에 정리된 부분에서 면을 달리하며 필사된 작품을 보면 작품이 대체로 특정 기준에 의해 군집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①은 만사가 중심이다. ②는 내직에 재직할 경험이 중심이다. ③은 흥이 일거나 타인에게 보내려고 창작한 작품이 중심이다. ④는 「월중록」이다. [부록 2]에 정리한 신우상 연보<sup>10)</sup>와 관련해서 보면 네 군집 중에 ②는 승문원과 한림원에 재직하고 부친을 기로과에 배행한, 1771년부터 1772년 봄 사이에 창작한 작품들임을 알 수 있다. ④는 1772년 9월부터 1773년 4월 사이에 창작한 작품 모음이다. ①의 앞 「능성록」은 1765년에 창작한 작품 모음이다.

군집 성격과 창작 시기를 고려한다면 면을 달리한 필사는 시편의 성격이나 창

10) 연보는 선행 연구에서 정리한 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신우상 나이 계산 오류를 비롯해 일부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본고의 [부록 2]로서 '나운(懶雲) 신우상(申禹相) 연보'를 작성했다.

작 시기를 구분하려는 의식의 결과로 이해된다. 물론 작품을 추가로 필사할 자리를 마련해 둔 결과로도 이해된다. 어느 경우든 『나운집』에는 ①~③이 모두 「능성록」에 이어 필사됨으로써 마치 「능성록」 시편으로 오해되어 왔다. 오해는 『나운고』 필사자가 ①~③의 성격이나 창작 시기를 잘 아는 사람이고 『나운집』 필사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다. 이는 『나운고』가 『나운집』에 선행하며 작자 신우상이 정리한 필사본이라는 추론을 지지하는 한 근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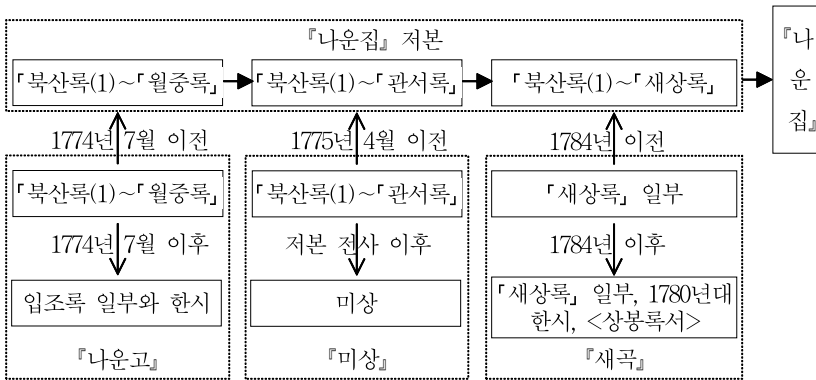
『나운고』가 자편 친필본이라면 해행서, 행초서의 서체 변화는 『새곡』과 같이 동일인의 필사 의식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이겠다. 해행서 부분에는 1773년까지 지은 시편이 「북산록」(1), 「괴향록」, 「북산록」(2), 「능성록」, 「월중록」과 같이 특정 단위별로 모두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문집에 준하게 정리하고자 하는 의식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행초서 필사 부분은 이전에 지은 작품을 정리한 후에 지은 작품을 우선 기록해 두려는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서 이해된다.

이제까지의 추론에 따르면 『나운고』의 편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신우상은 늦어도 1775년에 이르기 전에 1773년까지 지은 시편을 편별로 정사한다. 이때 「능성록」과 시기를 달리하는 시편을 구분해 전사한다. 남은 지면에 1774년 7월 4일부터 동월 27일까지의 입조 기사를 전사한다. 이후 9제 10수의 작품을 행초서로 기록한다. 편별로 정리되어 해서로 정갈하게 필사된 부분은 『나운집』에 해서로 그대로 전사된다. 이로써 첫째와 둘째 가설 가운데 『나운고』와 관련된 부분의 타당성이 일부 확보되었다.

『새곡』과 『나운집』의 선후관계는 『나운고』와 『나운집』의 선후관계보다 덜 명확하다. 왜냐하면 『나운집』 「새상록」에는 1784년까지 지은 작품만 수록되어 있지만, 『새곡』에는 「새상록」으로서 1784년 이후에 지은 작품, 1780년대에 지은 작품, 1784년에 작성한 <상봉록서>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록 작품의 창작 시기만 고려한다면 1783년 3월에 경성판관에서 체직하기 전까지 지은 작품이 수록된 『나운집』이 『새곡』보다 선행한다. 그러나 『나운집』의 「새상록」 부분만을 전사한 문헌이 별도로 있으면서 『나운집』이 신우상 사후에 편찬된 문집이라면 『새곡』은 신우상 친필본으로서 『나운집』에 선행하게 된다. 이 경

우 『새곡』이 『나운집』의 한 저본이 되기는 어렵다. 『새곡』 가운데 『나운집』의 「새상록」 수록 작품 만큼만 필사된 별도 문헌이 『나운집』의 저본이 된다.

두 문헌의 선후관계는 다소 명확하지 않지만 세 문헌의 작품 수록 양상과 각 문헌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신우상 생전에 「관서록」, 「새상록」 일부가 필사된 별도 문헌이 있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 가설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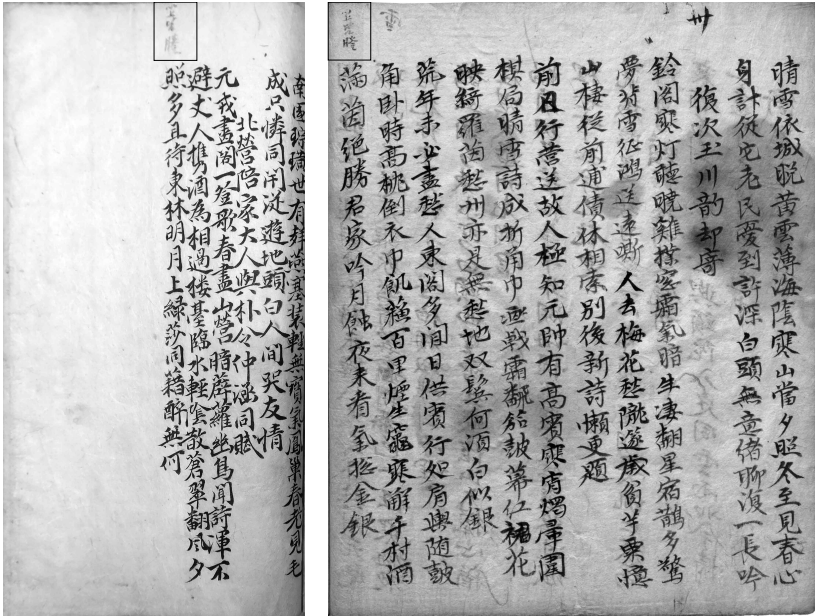


[그림 1] 『나운집』 저본 형성 과정 가설

위 그림에 따르면 『나운집』 저본은 한 시기에 정리된 문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시차를 두고 전사된 문헌이 된다. 현전하는 『나운고』와 『나운집』의 수록 내용을 비교할 때 『나운고』에 입조 기사가 필사되기 전, 곧 1774년 7월 이전에 『나운고』의 「북산록」(1)부터 「월중록」까지 정리된다. 이 부분이 『나운집』 저본에 전사된다. 이후 1775년 1월부터 부친상을 당하는 4월까지 지은 작품이 「관서록」으로 묶인다. 「관서록」이 『나운집』 저본에 전사된다. 1783년 1월부터 1784년 3월까지 지은 시가 「새상록」으로 정리된다. 정리된 작품이 『나운집』 저본에 전사된다. 이후 경성판관 체직 이후에 지은 작품 가운데 경성판관직과 관련된 작품이 『새곡』의 「새상록」에 이어서 수록된다. 서용되고 나서부터 1789년까지 지은 작품이 「새상록」 다음에 면을 달리해 『새곡』에 필사된다.

『나운집』 저본이 시차를 두고 편찬되었다는 점과 관련해 『나운고』와 『새곡』

의 아래 흔적이 주목된다.



[사진 6] 『나운고』(좌측)과 『새곡』(우측) 일부

위 사진은 『나운고』와 『새곡』의 서미에서 동일한 어구가 발견된 면이다. 사각으로 표시한, 두 문헌의 서미 부분에는 ‘以上皆贅(이상개등)’이라는 어구가 동일 필체의 행서(行書)로 적혀 있다. 『나운고』에는 주목, 『나운집』에는 후목으로서 글씨의 색만 다르다. 이 어구는 ‘여기까지 모두 배김’으로 풀이된다. 공교롭게도 『나운고』와 『새곡』의 ‘이상개등’을 경계로 하여 처음부터 경계까지만 『나운집』에 그대로 수록되고 경계 이후의 작품은 『나운집』에 수록되지 않는다. 이는 『나운고』와 『새곡』의 해당 부분까지를 다른 문헌에 필사해 두고 『나운고』와 『새곡』을 별도로 추록해 나갔다는 의미이다. 다른 문헌에 필사해 두지 않았다면 필사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서미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서미의 어구는 전사를 마친 지점을 기억해두기 위한 메모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나운고』와 『새곡』의 추록 성격을 고려한다면 서미의

메모는 신우상이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나운집』 저본은 신우상이 시차를 두고 작품을 전사해 둔 별도 문헌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나운집』 편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774년 이전에 「북산록」 두 종, 「괴향록」, 「능성록」, 「월중록」을 틈틈이 마련해 둔다. 1774년에 이르러 「북산록」(1), 「괴향록」, 「북산록」(2), 「능성록」, 「월중록」을 한데 정사(淨寫)하고 별도 문헌에 전사해 둔다. 처음 정리한 문헌에 당해 7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조 기사를 필사한다. 입조 기사 필사를 마치고 난 뒤 멀지 않은 시기에 9제 10수의 시를 행초서로 추록한다. 이상을 한데 모아 위와 아래에 각각 2침을 뚫고 한지를 돌돌 만 지끈으로 제책하고 ‘懶雲稿(나운고)라는 제명을 표지에 묵서한다. 1774년 12월에 대동도찰방에 제수되어 1775년 1월에 임소에 도착한 뒤 당해 4월 부친상을 당할 때까지 지은 시를 모아 「관서록」을 마련한다. 「관서록」을 「북산록」(1)부터 「월중록」을 필사해 둔 별도 문헌에 전사한다. 1778년 3월에 홍양현감에 제수되어 1780년 체직할 때까지 지은 시를 모아 「호남록」(가칭)을 편찬한다. 1782년 12월에 경성판관에 제수되어 1783년 1월 19일에 임소로 출발해서 1784년 3월에 체직되기 전까지 지은 작품을 「새상록」이라는 편명에 정사(淨寫)한 후에 이 작품을 「관서록」까지 전사한 별도 문헌에 전사한다. 별도 문헌이 『나운집』의 저본이 된다. 1784년 3월에 체직된 후에 경성판관 경력과 관련된 작품을 「새상록」에 이어 필사한다. 「새상록」을 정리한 후에 「관서록」, 「호남록」(가칭), 「새상록」을 묶어 ‘상봉록’이라 칭하고 <상봉록서>를 1784년 음력 8월에 짓는다. 이후 1780년대에 지은 작품을 「새상록」과 동일한 문헌에 이어 필사한다. 1789년 이후 어느 때에 <상봉록서>를 필사하고 『나운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책하며 표지에 ‘塞曲(새곡)이라 묵서한다.

신우상의 전기적 관점에서 『나운고』, 『새곡』에 앞서 지은 작품을 정리하고 성책한 시기로 추정되는 1774년, 1789년은 물론 <상봉록서>를 지은 1784년 8월이 모두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라는 점이 공교롭다. [부록 2] <나운 신우상 연보>를 보면 신우상은 1773년 4월에 체직된 이후 1774년 7월 4일이 되어서 사간원 정언에 제수된다. 1774년 7월 4일은 『나운고』의 입조 기사가 시작하는 날

짜이다. 1784년에는 명천 살육사 처리와 관련해 의금부 조사를 받고 4월 8일에 풀려났다가 12월 13일에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기까지 관직에서 물러나 있다. 이 기간 8월에 <상봉록서>가 지어진다. 1789년과 관련해서는 1788년 12월 8월 체차 이후 1789년 10월 25일에 사헌부 집의에 제수되기까지 관직에서 물러나 있다. 이때까지 지은 작품이 이전에 정리한 「새상록」과 함께 『새곡』에 수록되어 있다. 생애와 작품 정리의 관계를 본다면 「관서록」은 1775년 3월에 숙병으로 인해 대동도찰방을 그만두고 이듬달에 부친상을 지내는 기간에 정리되었을 법하다. 홍향현감 활동과 관련한 「호남록」(가칭)도 1780년 1월 3일에 체직되고 나서 조모상을 치르고 1782년 7월에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는 사이에 정리된 듯하다. 「관서록」, 「호남록」(가칭)이 실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서록」이 따로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운집』에 수록되었을 수 있겠다.

『나운고』와 『나운집』의 편찬 과정을 추론한 결과를 고려한다면 본 장의 서두에 세운 두 가지 가설 가운데 둘째 ‘『나운고』와 『새곡』 수록 작품 일부가 『나운집』에 필사된 이후에 신우상이 『나운고』와 『새곡』에 작품을 추가로 필사하였다’는 논증되었다. 그런데 첫째 ‘『나운고』와 『새곡』은 『나운집』의 일부 저본이 된다.’는 ‘『나운고』와 『새곡』 일부를 「관서록」과 함께 필사해 둔 별도 문헌이 『나운집』의 저본이다’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이때 별도 문헌은 시차를 두고 필사되었다. 이로써 신우상의 문집 편찬 과정이 추론되었다.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우상 한시의 한시사적 위상과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할 다음의 두 문제에 주목하였다. 첫째는 신우상이 창작한 한시 작품의 규모이다. 둘째는 현전 문집의 편찬 과정이다. 첫째와 관련해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산문고에 소장된 저편 미상의 『새곡』을 신우상 시집으로 발굴해 제2

장에서 문헌 특징을 자세히 고찰했다. 둘째와 관련해 선행에 발굴된 『나운고』, 『나운집』과 『새곡』을 한데 모아 문헌학적 층위에서 분석함으로써 문집은 물론 소시집의 편찬 과정을 제3장에서 최대한 개연성 있게 추론했다. 추론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새곡』에 수록된 <상봉록서>, [부록 2]로 제시한 연보를 논거로서 활용하였다.

신우상 한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진행한,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우상 한시집으로서 현전하는 문헌은 『나운고』, 『새곡』, 『나운집』이다. 『나운고』는 1775년 전에 정리된 친필본이다. 『새곡』은 1789년 이후에 정리된 친필본이다. 『나운집』은 『나운고』, 미발굴 「관서록」과 「호남록」(가칭), 『새곡』을 저본으로 삼아 시차를 두고 필사된 별도 문헌을 저본으로 삼은 문집이다. 세 종의 문헌에 수록된 한시 작품은 총 402제 586수이다. 작품 대부분은(9제 10수 제외) 생애의 특정 국면을 중심으로 총 8편의 소시집에 나뉘어 묶여 있다. 이 가운데 「새상록」의 일부, 1780년대 창작한 작품이 『새곡』의 발굴로 인해 학계에 드러났다. 다만 신우상이 창작한 한시 규모가 밝혀지려면 「관서록」은 물론 「호남록」(가칭), 『상봉록』 등이 발굴되어야 하겠다.

본고의 논의는 신우상 한시가 필사된 『새곡』을 발굴해 학계에 소개하고 『새곡』과 선행에 발굴된 『나운고』, 『나운집』의 관계를 문헌학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초점이 놓여 있다. 본 연구의 제한된 시각에도 불구하고 『새곡』이 발굴됨으로써 신우상 한시 연구의 토대가 거의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790년 이후부터 몰년까지의 작품이 아직 발굴되지 못했지만 신우상이 왕성하게 활동한 생애 기간의 한시가 대부분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우상 한시를 분석하여 석북 집안 문인으로서의 특징, 한시사적 위상과 가치 등을 규명하는 연구가 후속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석북 집안의 이해가 심화되어 18세기 조선 시단과 시풍에 대한 논의가 풍부해지기를 기대한다.

## [부록 1] &lt;상봉록서(桑蓬錄序)&gt; 원문과 번역문\*

桑蓬錄序<sup>01</sup>

男子生而桑弧蓬矢以射四方, 志遠遊也. 僕生<sup>02</sup>東國, 年弱冠, 游京師, 學習功令之文, 積<sup>03</sup>困數十年, 始成一第, 旋入翰苑. 臺閣, 馳驟<sup>04</sup>束縛, 悶<sup>05</sup>無閒意. 歲甲午, 除涇江丞, 觀平壤、<sup>05</sup>沸流之勝, 撫東明王遺跡, 西至龍灣, 坐統軍<sup>06</sup>亭, 望胡山而歸. 戊戌, 館興陽符, 南極漲海, 觀風<sup>07</sup>壽之壯, 橘柚、篁竹之美. 壬寅, 赴鏡城任, 北<sup>08</sup>至六鎮窮髮之境, 望白頭挾渤海, 周流千餘<sup>09</sup>里. 前後所歷, 皆西南北極處也. 凡山川道路, 樓<sup>10</sup>臺、亭榭, 歌舞綺羅, 郵亭、店舍, 憂愁佚樂,<sup>11,42a</sup>觸於目而將於境者, 一發於詩, 或馬上衝口,<sup>01</sup>率爾成章, 或當場酬唱, 操筆立書. 雖不無<sup>02</sup>龍蚓之雜出, 玦玉之錯陳, 而摠名之曰: “桑蓬錄.” 此<sup>03</sup>蓋僕游跡也, 不知從今以後, 更何如也. 而雖極<sup>04</sup>一國之四陬地, 不過數千里. 年已且亦六旬矣, 居<sup>05</sup>然衰落五官四體之用, 非復昔日矣. 撫卷<sup>06</sup>恨<sup>07</sup>, 寧不悲歎耶. 然則僕負桑蓬耶, 桑蓬<sup>07</sup>則負僕耶. 知我者其必憐之矣.<sup>08</sup>

歲甲辰中秋, 懶雲居士題于白門寓舍<sup>09</sup>

남자가 태어나면 뿡나무로 활을 만들고 쑥대로 화살을 삼아 사방으로 쏘아 먼 유람에 뜻을 둔다. 내가 동국에 태어나 약관의 나이가 되어 서울에서 지내며 과거시험 공부에 수십 년 애를 써 비로소 급제하여 예문관, 사간원, 사헌부 등에서 일하며 분주하게 속박되어 있어 답답하니 한가로운 마음을 둘 수 없었다. 갑오(1774)년에 대동도찰방에 제수되어 평양과 비류의 승지를 유람하고 동명왕 유적을 돌고 서쪽으로 용만에 이르러 통군정에 앉아 오랑캐 산을 바라보고 돌아왔다. 무술(1778)년에는 흥양부에 머무르며 남쪽으로 과도치는 바다 끝까지 이르러 바람에 넘실대는 장관, 귤유(橘柚)와 황죽(篁竹)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였다. 임인(1782)년에는 경성 임소에 가서 북으로 육진궁발의 경계에 이르러 백두

\* 원문을 옮기며 『새곡』 원문의 행수(行數)를 한 행이 끝날 때마다 뒤에 위치자로 표시하고 통사 구조에 따라 본문에 표점을 찍었다.

산을 바라보며 발해를 끼고 천여 리를 두루 유람하였다. 진후 지나온 곳이 모두 서남북으로 다한 곳이다. 무릇 산천과 도로를 지나며 누대와 사정에서의 가무와 화려한 옷차림, 우정과 점사에서의 우수와 즐거움이 눈에 닿아 어떤 경지에 이르면 시로써 드러났으니 혹 말 위에서 입을 벌려 되는 대로 글을 짓고 혹 그 자리에서 수창하며 붓을 들어 바로 써 내려갔다. 비록 용과 지렁이가 섞여 나오고 아름다운 옥과 평범한 옥이 뒤섞여 늘어지는 바가 없지 않았으나 그것을 모아 '상봉록'이라 이름 지었다. 이는 대개 내가 유람한 흔적으로서 지금 이후로 다시 어찌할 줄 모르겠다. 비록 한 나라의 네 오지의 끝이라 하나 수천 리에 불과하다. 나이가 이미 육순이 되니 어느새 오관과 사체의 사용이 쇠락하여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책을 어루만지며 한스럽고 한스러워하니 어찌 슬프게 탄식하지 않으리오. 그러하니 내가 상봉을 저버린 것인지, 상봉이 나를 저버린 것인지. 나를 아는 사람은 이를 반드시 불쌍하게 여기리라.

때는 갑진(1784)년 중추(8월)로 나운거사가 백문우사에서 제한다.

[부록 2] 나운(懶雲) 신우상(申禹相) 연보

나이	음력 날짜			생애	
	연도	월	일		
1	1730	庚戌		영조 6 신광수와 해남 윤씨(윤두서의 딸)의 맏아들로 출생	
30	1759	己卯		영조 35 초명 맹권(孟權)으로 식년 진사시 합격	
36	1765	乙酉		영조 41 능성(綾城) 유람(「능성록」)	
37	1766	丙戌		영조 42 「북산록」(2) 수록 한시 창작 시기(~1767)	
39	1768	戊子	7. 7.	영조 44 월대에서 시행한 칠석제에서 표문으로 삼하의 평점을 받아 거괴(居魁)하여 전시(殿試) 응시 기회를 얻음	
42	1771	辛卯	3.	영조 47	식년 문과 급제
			4.		승문원 소시(召試)에서 부(賦)로 삼상의 평점을 받아 거괴함
			7.		가주서 제수
			10.		한림 소시에서 표문으로 삼중의 평점을 받아 거괴함
			12. 1.		예문관 검열 제수
43	1772	壬辰	2. 16.	영조 48	기로과(耆老科)에 참석하는 부친 배행
			8. 1.		예문관 대교로 승진
			9. 25.		부친이 영월군수에 제수되자 휴가를 청하여 영월까지 부친을 배행(11. 3.까지 자사(子舍)에 묵음)
			11. 3.		예문관 관원이 도성 안에 있어야 하는 명으로 서울 귀환
			12. 1.		예문관 일봉교(一奉敎)로 승진
			12.		육품으로 승급하여 성균관 전적에 부처
			1.		휴가를 청하여 영월로 가서 자사에 묵음
44	1773	癸巳	1. 20.	영조 49	병조정랑에 제수 (2월에 영월에서 상경해 재동에 머물)
			윤3.		휴가를 청하여 영월로 가서 자사에 묵음 (4월 체직)
			4. 14.		체재공 평안감사 전송시 지음(이상 「월중록」)
			7. 4.		영조 50 사간원 정언 제수

나이	음력 날짜			생애	
	연도	간지	음력		
45	1774	甲午	7. 27.	영조 50	체직 상소 올림
			8. 4.		이조좌랑 제수
			10.		정랑으로 승진
			12. 20.		대동도찰방 제수
46	1775	乙未	1.	영조 51	평양으로 출발
			2.		관찰사의 순행을 수행해 의주까지 다녀옴
			3.		숙병이 심해 체직(이상 「관서록」)
			4. 26.		부친 별세
49	1778	戊戌	3. 25.	정조 2	홍양현감 제수
			4. 20.		사직을 청함(26일에 한산 도착)
			5. 6.		조모를 보시고 가볍게 유람[판여(板輿)]
			5. 11.		홍양으로 출발
			12.		휴가를 얻어 산소를 돌봄
50	1779	己亥	7.	정조 3	숙병으로 폐무(12월까지)
51	1780	庚子	1. 3.	정조 4	홍양현감에서 체직(이상 「호남록」(가칭)) 조모상
53	1782	壬寅	7. 26.	정조 6	사간원 정언 제수
			8. 2.		장문의 토역소(討逆疏) 올림(8. 15. 삭직/11. 12. 서용)
			12. 29.		경성판관 제수
54	1783	癸卯	1. 19.	정조 7	경성으로 출발
			2. 23		경성 도착
55	1784	甲辰	2.	정조 8	명천 살육사로 감찰을 받음
			3. 3.		경성판관 파출(이상 「새상록」)
			윤3. 19.		서울 도착(25일 의금부/4. 8. 방환/7. 20. 서용)
			12. 13.		사간원 정언 제수(12. 24. 체직)
56	1785	乙巳	1. 7.	정조 9	서용
			10. 4.		통례원 우통례 제수
			11. 11.		사헌부 장령에 의망(11. 21. 파직)
			12. 23.		사간원 헌납 제수
			12. 28.		질병으로 인한 사직소 올림(체차)

나이	음력 날짜			생애	
	연도	간지	일		
57	1786	丙午	1. 9.	정조 10	사간원 헌납 제수(1. 12. 체차)
			3. 22.		사간원 헌납 제수(4. 10. 체차)
59	1788	戊申	8. 18.	정조 12	사간원 헌납 제수(10. 16. 체차)
			11. 7.		사헌부 집의 제수(12. 8. 이전 체차)
60	1789	己酉	10. 25.	정조 13	사헌부 집의 제수
			10. 28.		결성현으로 귀양(11. 2. 배소 도착)
			11. 4.		해배(11. 5. 방환/11. 7. 한산으로 출발)
			11. 10.		서용
61	1790	庚戌	11. 11.	정조 14	사복시 사복정에 제수
			12. 26.		질병으로 인한 사직소 올림
62	1791	辛亥	3. 23.	정조 15	사간원 사간 제수(4. 3. 체차)
63	1792	壬子	2. 5.	정조 16	사헌부 집의 제수(2. 23. 체차)
			6. 24.		종부시 종부정 제수
			10. 23.		사간원 사간 낙점
			11. 7.		사복시 사복정 제수(12. 30. 체직)
64	1793	癸丑	6. 15.	정조 17	무장현감 제수
			6. 27.		무장현 도착
			10. 17.		내시 산송사(山訟事) 연루
			12. 24.		무장현에 정배
65	1794	甲寅	1. 20.	정조 18	해배
			2. 10.		무장현 출발(2. 14. 집 도착)
67	1797	戊午	12. 25.	정조 20	응지진소(應旨陳疏) 작성
70	1799	庚申	1. 27.	정조 22	별세

## 참고문헌

### 1. 자료

『나운고(懶雲稿)』(안대회 교수 소장).

『나운집(懶雲集)』(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청구기호: D3B~1678, 등록번호: a44017569:y01; 디지털 장서각 마이크로필름 화상).

『새곡(塞曲)』(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등록번호 482547, 청구기호 고서학산 集詞 曲類 1923).

『대로유고(大鹵遺稿)』(신석상(申奭相), 문중가소장; 승문회 제작 CD).

『조선왕조실록』, 『일성록』(국사편찬위원회 운영 누리집).

### 2. 논저

김동준, 「나운 신우상과 그의 시문에 대하여」, 『돈암어문학』 25, 돈암어문학회, 2012, 125~159면.

안대회, 「석복가와 조선 후기 문단」, 『문헌과 해석』 61, 태학사, 2012, 207~214면.

| Abstract |

## On the Compilation of *Saegok*(塞曲) : The Poetry Collection and Literary Anthology of Shin Woosang

Shin, Hyun-woong

Korea Univ. of Technology & Education Prof.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introduce previously unexamined classical Chinese poems by Naun(懶雲) Shin Woosang(申禹相, 1730 - 1799) and to reconstruct the compilation process of his literary collections. Shin Woosang, the eldest son of Seokbuk(石北) Shin Gwangsu(申光洙, 1712 - 1775), belonged to a literary family that established a distinctive poetic style in the eighteenth-century Joseon literary world. Accordingly, an examination of his poetry contributes to a fuller understanding of Joseon poetry and its stylistic developments.

This article focuses on a manuscript entitled *Saegok*(塞曲), housed in th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though previously regarded as a text of unknown authorship, *Saegok* is shown to contain poems composed by Shin Woosang in the 1780s, along with “Sangbongnokseo”(1784). Through this manuscript, sixty-eight additional poetic titles comprising 121 poems—absent from his collected works *Naungo*(懶雲稿) and *Naunjip*(懶雲集)—have been newly identified, recovering most of his poetic output from his most active

period. Furthermore, “Sangbongnokseo” demonstrates that Shin Woosang personally compiled selected poetry collections during his lifetime. By examining the bibliographical features of *Saegok* and reconstructing the compilation process of Shin Woosang’s works, this study seeks to enrich scholarly discussions of eighteenth-century Joseon poetry.

**Key word** : the late Joseon period, the eighteenth century, the Namin literati faction(南人), Shin Gwangyeon, Shin Gwangha, Buyongdang Shin clan(芙蓉堂申氏), Shin Gisang, Shin Seoksang